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줄 史料의 발굴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 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빼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및 中國과의 關係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어느 자료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 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凡例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二、明代의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르지 아니하였다.

三、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 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 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상황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머리에 一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四、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五、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體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六、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너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七、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이다. 그러나 원본의 體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贊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틀림없이 誤字 脫字 衍字 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표를 붙였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경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보여서 이가 아니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普通語) 포함) 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여의(177) ()을 붙였다.

一、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나타내려 노력하였다.

가.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는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 干支行^先——干支行^後 ○(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干支와 後續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원본의 게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틀 이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掲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三月

景仁文化社

世宗實錄

目次

世宗十六年(宣德九年).....	一
世宗十七年(宣德十年).....	四
世宗十八年(正統元年).....	一四
世宗十九年(正統二年).....	三〇七
世宗二十年(正統三年).....	四六一

世宗實錄 卷六十三

十六年正月

○己卯朔上率王世子以下文武群臣行望闕禮又御勤政殿受王世子賀禮次受群臣賀禮並如常儀議政府進表裏鞍馬倭野人亦參皆進土宜野人進生土豹卽命放之〔下略〕

○賜建州衛都指揮李滿住及李撒滿荅失里使送李三波老等十
一名衣服笠靴

庚辰○戶曹啓今觀通事輩遼東貿易時有定私布之數開其私買之端故數外之物因緣潛持專用力於私事而官市則暫不致慮或二三匹貿易備責而已還載布子而回徒困人馬甚不可也今後令義州官察其定數外雜物及其回也搜其貿易公私物件轉報本曹

定爲恆式從之

壬午○禮曹與承文院提調同議啓譯語人勸勵之策一漢語訓導加差司正徐士英張顯等一前此譯語之人利於貿易不憚行役之勞爭相鍊業競欲赴京自禁私貿易若差從事官則多般窺避無復鍊業之心每當入朝之行雖不令貿易於京城許令貿易於遼東一譯學生徒居住外方者依當番甲士例完恤本家以供居京之費一加擇年少聰敏子弟十人赴學從之士英與顯本唐人也

〔參〕甲申○咸吉道監司金宗瑞條上事目慶源寧北鎮入居二千二百戶內慶源三百五十戶端川二百八十戶北青二百八十戶洪原四十戶鏡城五百五十戶吉州五百戶右各官農事稍稔道路不甚遠阻故定額之數多咸興永興各四十五戶定平三十戶安邊二十戶文川十二戶宜川龍津各十戶高原十五戶預原十三戶右各官年歉道遠故定額不多因其

數少可擇壯勇之人以定之其行糧不敷者計其人口多少程途遠近量給還上一慶源府寧北鎮壁城造築軍人慶源五百名鏡城八百名吉州二千五百名端川一千名北青一千名洪原三百名凡六千一百名量其事功難易役之上項各官農事稍稔除入居人外以餘戶抄出〔中略〕一抄定入居時多有稱向化人子孫謀避者本道人民與向化人男婚女嫁並皆相連若抄其醵不相連於向化者則大事幾乎不成除〔己力〕身向化外後子孫及外孫等並皆抄之且防牌等於慶源鏡城防禦慣熟并抄其壯勇有實之人〔中略〕一慶源府寧北鎮入居人民以四口以上爲一戶二千一百戶官奴婢以二口以上爲一戶二百戶自三月十五日至七月初十日計口食不下二萬石竊計慶源鏡城所在雜穀不過一萬四千石其不足者六千石也今者江原道兩倉納米皆輸于安邊共計六千石令其道海邊各官見在米分載于公私船輸于安邊以北各浦以本道水路詳知人管押輸于慶源府一慶源府寧北鎮設立土官作新士氣最是大節其土官之

數考其咸興土官之數加減以聞略中上命都承旨安崇善往議政府與領議政黃喜左議政孟思誠議之其慶源府領北鎮寧力入居人分定行糧分給壁城造築軍人分定等事依所啓施行略中入居人民己力已身向化外後孫外孫并令入居事久遠來居與本國人民無異者依所啓施行江原道沿海各官田糙米輸轉事水路甚險自古爲難莫若令戶曹寧北鎮近官所在雜穀磨鍊以聞次次移給可也設立土官事大抵官額之多寡必因事務之煩簡今慶源鏡城雖曰巨邑其事務之煩不可與平壤比論官額何必若此之煩乎且當新造之初設此職官欲興起人心由少漸多益起人心可也始多終少無乃不可乎崇善回啓略中上曰然則當移其寧北鎮近官所在雜穀也又曰新造之初建設土官以興士氣最是先務其官額之數毋得減省令吏曹依所啓施行

[參]丙戌○兵曹啓寧北鎮土官衛號稱柔遠慶源府土官衛號稱懷遠從之○己丑御勤政殿受朝野人指揮李甫丹等二十六人倭人宗貞盛

使送三人隨班行禮

〔參〕己丑○兵曹啓今與慶源築城鑿池之役然去年凶歉時當絕食者頗多
非徒遠處之人（襄力）裹糧爲難罷役之期在於解冰之後則今年農業恐失其
時姑除其役以待秋成只修因雨頽落之處從之

庚寅○命都承旨安崇善與大臣等議事其一曰予竊聞之往者禁網疎
濶沿邊之人暗與婆豬江野人私相往來以資稱貸或結婚姻以成交好
守令雖或及聞自知禁防之不能全不馳報國家焉得而知之今者征討
之後革面來附禮當待之以厚然非我族類其心必異豈可徒信其歸附
之心而不嚴其出入之防乎自今其私相通好一依前例乎不得已有體
探則守令給公幹然後許以往來乎其二曰今野人等輸誠納款往來絡
繹然驛路疲弊各官病於支持其欲上來者從自願一一許之乎其間擇
爲首者許以上來毋使彼人等擅自往來乎〔中略〕同議以聞戶曹參判朴信
生等議曰痛禁沿邊人私自往來若有犯者用其謀叛之律體探之事依

慶源寧北之例野人願上京者亦依威吉道例只送渠帥領議政黃喜等議曰一禁彼我私相往來若有來見守令求其鹽醬者一依前例有體探之事則守令報都節制使爲之自願上來者只送頭頭人歲不過四五十人〔中略〕上又命安崇善與黃喜孟思誠等議〔中略〕其三曰右議政崔閔德解冰後上來何如喜等啓曰解冰後上來則彼人猶以爲疑今旣歸順可卽上來〔中略〕上皆從之

庚寅○刑曹啓北青囚女佐伊德潛奸野人逃入彼土律該謀叛令大臣議之判書趙啓生等曰宜從刑曹所啓領議政黃喜等曰潛從他國但共謀者不分首從皆斬之律正合佐伊德之罪然妻妾子女給付功臣之家爲奴之文非指婦人減等施行何如判書申商曰無夫失巢之女奸近處人去耳宜減等施行命減一等除其緣坐

〔參〕癸巳○吏曹啓威吉道慶源府寧北鎮土官東西班令本道監司才幹居

處與父職姓名具錄啓聞後本曹更加覈實除授其各品稱號若蹈襲咸與土官之例則一道三處土官稱號混淆且無設官邊鎮作新士氣之意兩處各品職名改定以聞（下略）

甲午○野人倭人來獻土宜

戊戌○禮曹啓亏狄哈柳者從自願侍衛賜衣服笠靴糧料家舍家財鞍馬奴婢又使娶妻除職從之

○兵曹因平安道監司之書以啓曰野人越江後請所持長行馬喂養之豆荅以無國家之法而擅便許給爲難從之仍命曰若不得已時則酌量施行

己亥○賜野人李甫丹等衣服笠靴命饋于南廊

辛丑○差通事金仲渚管押被虜逃來唐人童脫脫等二名解送遼東仍賜脫脫等衣服笠靴

丙午○禮曹判書申商啓曰今來斡朶里告本曹曰今作鎮于斡木河仍率我以居乎無乃黜我等乎蓋其意欲其率居也上曰願爲之氓則何逐之有若欲出去則何拘之有作鎮斡木河彼必不肯然斡木河本是我國之境鄉也童猛哥帖木兒借居其地今見滅於兀狄哈其地蕭然閑曠在我不可不作鎮以鎮之女眞亦來居咸吉道斡朶里若欲同居則亦此例也何獨差殊

戊申○賜野人指揮甫安豆等二名千戶巨所等十四名衣服笠靴
十六年二月

〔參〕辛亥○兵書據全羅道監司關啓曰慶源府寧北鎮自募人在途絕食者

令時到官量給還上入居後所在官收納從之

甲寅○僉知承文院事李邊吏曹正郎金何等以質問直解小學如遼東命給盤纏布十一匹人參五斤邊爲人性鈍年三十餘登第入

承文院學漢語期於成効徹夜講讀聞有能漢語者則必尋訪質正家人相語常用漢語遇朋友必先以漢語接語然後言本國之語由是能通漢語

○平安道監司啓義州昌城碧潼理山江界慈城閭延等各官居民許令越江耕田守令千戶等嚴加守護上令都安撫使酌量施行乙卯○嫌眞兀狄哈及楊木荅兀等七十餘騎掠東良北野人人口牛馬東良野人給曰朝鮮軍馬四千餘人今到斡木河賊驚懼棄牛馬奔還

〔參〕丁巳○咸吉道監司啓曰本道端川等官補充軍等自募入居於新排慶源寧北鎮者乞皆入送隨才差役以實邊邑從之仍傳曰并他道行移依上項例施行

〔參〕辛酉○咸吉道監司金宗瑞請於慶源寧北鎮兩邑皆置判官卽命吏曹

與兩議政同議擇其文武備具者以啓

〔參〕壬戌○賜奴婢并五十口于平康縣是縣本凋殘且人吏二十名自募入居于寧北鎮故有是賜

〔參〕○咸吉道觀察使金宗瑞啓臣與都體察使河敬復副使沈道源兵馬節制使成達生慶源節制使宋虎美寧北鎮節制使李澄玉等審定慶源寧北鎮兩處城基布置條件開寫以聞一石幕木柵移排東良北幹木河岐令其耕作附近田地者聚居木柵內差土官率領把截守護一幹木河則非唯壤地偏小而薄田居半間有膏腴之地皆爲彼人之田入居人民耕作之田數少不可置其郡邑也然西距東良北不遐北通賊路要衝之地且是幹朶里等聚居之處造壁城用布帛尺周回三千尺伯顏愁所則西距幹木河三十里東距所多老六十里東西救援甚易土地廣濶沃饒可居人民三百餘戶北連董巾愁州賊路相通要害之處移排寧北鎮於伯顏愁所造壁城周回六千尺於幹木河壁城則節制使率領軍人常時守

禦鎮服彼人之心於伯顏愁所則差判官量給軍人守禦節制使往來審治之軍人多少以賊變緊緩酌量分率一所多老則土廣且饒東西與北皆通賊路要害之處審定基地移置慶源府造壁城周回六千尺一東臨古石城則城基廣濶爲半頽落非唯修築爲難城內傾窄人民恒居出入農作爲難勿令修築孔州城子亦且隘窄農民聚居亦難然三面土地沃饒可當農作而所多老邑城相距遙隔又無守護修築此城擇有武略者差海道萬戶兼孔州等處管軍僉節制使正軍一千一百內分掌二百冰合時防禦陸地解冰後泊舟城下有海道賊變乘舟而下則水陸防禦兩全矣一兩邑沿邊入居人民等令兩邑節制使量其要害及遠近排置木柵使之聚居差土官守護木柵各令入堡之人隨宜造排一慶源寧北鎮入居一千一百戶各率四五丁以上合計人戶不下六七千詞訟煩劇節制使剪治無暇故不得全治軍卒因此防禦虛疎於兩邑各置判官全治民事節制使全掌軍務何如一寧北慶源或稱府或稱鎮皆稱都護府何

如寧北鎮土地則東至夫珍衣造山鹿野峴農所平西至斡木河錢掛東
良北岐石幕黃節伐獐項要光院西嶺青巖南至海北至何乙漢大山慶
源府土地則東限豆滿江西至於豆波峴者乙未下峴翁丘南至海北至
馬乳山割屬一童巾愁州地品雖或有沃饒之處然不廣濶置邑把截並
皆不宜且賊人來路守禦甚難姑置勿守一兩邑四方周回相距自龍城
至東良北斡木河岐九十里又至斡木河七十里自斡木河至伯顏愁所
三十里自伯顏愁所至所多老慶源邑城六十里自慶源邑城至孔州石
城百有四里自石城至豆滿江入海處三十里自入海處至蒙尙三十里
自蒙尙至富居站三十里自富居站至龍城六十里共計五百九十八里
量其可耕之地兩邑入居二千二百戶雖各率餘丁無有不敷之患

[參] 甲子○以司僕判官李伯慶爲慶源判官鏡城判官柳思枝爲寧北鎮判
官從議九議政府吏曹僉舉也

[參] 癸酉○吏曹啓咸吉道慶源寧北鎮皆稱都護府各置判官且前此本道